E->K

1.

지난 금요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연내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 금리를 1.25%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인상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정부의 부채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채금액은 매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가계 부채는 전월보다 8조 7천억원 증가한 682조 4천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 전 재정분야에 걸친 가계 부채는 전년보다 11.1% 증가한 1257조 3억원을 기록했다.

Eugene Investment의 채권분석가 신동수씨는 “저조한 국내 소비와 수출,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 등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은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협조를 이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수씨는 가계부채증가 추세가 완화되어야만 한은이 기준 금리 인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기엔 이르다. 소비세인하,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김영란법 시행 등 경기부양정책의 만료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코카콜라 회장 겸 CEO인 Douglas Ivester는 지난 수요일 유럽 소비자들이 겪은 최근의 사태에 유감을 표하고, 코카콜라의 제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Ivester 회장은 성명을 통해 “저희 유럽 소비자들이 지난 며칠간 겪은 문제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밝혔다.-> 동일 내용으로 생략) 벨기에에서는 100명이 넘는 소비자가, 프랑스에서는 2명이 코카콜라가 제조한 캔음료 섭취 후 두통, 어지러움, 그리고 소화불량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113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여준 신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Ivester 회장이 밝혔다. 그는 또한 “코카콜라가 유럽의 소비자, 고객, 그리고 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자 코카콜라 제품이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모든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품 품질과 관련한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9일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제품 이상 증세가 발생했을 때, 코카콜라는 처음으로 관련 대응을 자제했다. 지난 화요일 코카콜라는 Atlanta, Georgia 본사에서 조사 성명서를 발표하며 해당 원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카콜라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제품 자체와 관련한 건강 및 안전에 유해한 사안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태는 해당 시장에만 국한된 것으로, 이번 문제는 세계 다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다.” 코카콜라는 벨기에 Antwerp 공장에서 제품에 청량감을 더하는 이산화탄소를 건강에 유해한 종류로 사용하여 음료의 질을 떨어뜨렸으며, 프랑스 Dinkirk 공장에서는 오염된 곰팡이 방지약 사용이 음료에 악취가 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